
2021전남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2021. 6.



전남노동권익센터

목 차

1

조사 개요

조사 목적 및 내용 4

2

조사 결과

1. 노동자 부문 5
2. 사용자 부문 17

3

결론 및 제언

결론 및 제언 27

1

조사 개요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정책 중 정부가 수행하지 않고 기준을 정하여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그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기본적인고 이상적인 목표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임금을 높여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있다(헌법 제32조 제1항, 최저임금법). 즉,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이 정도 돈은 받아야 한다고 정부에서 정해놓은 하한선이다. 1988년 시행 후 해마다 5~8%씩 인상돼왔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16.4%(1,060원, 시급 7,530원), 2019년 10.9%(820원, 시급 8,350원)를 각각 인상하여 8천원 대까지 끌어올렸으나, 2020년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2.9%, 2021년 1.5%(시급 8,720원)로 소폭인상되는데 그쳤다. 현재도 코로나 재난 직격탄의 여파는 소규모영세사업장(소상공인 포함)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2022년의 최저임금인상률은 크게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최소한 5.5%이상은 올라야 한다. 현재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5월말 현재) 2.6%정도 올랐다. 2019년부터 상여금의 25%와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는 등 최저임금산입범위가 확대되어 7%(시급 9,330원)가 인상돼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실제 임금인상률은 2.5%수준에 머물게 된다.

이 조사는 2021년도 최저임금(8,720원)이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저임금제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인식은 어떠한지, 2022년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각각의 의견과 희망액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했다.

1. 조사목적

- 전남지역 서비스업종 최저임금 준수 및 근무환경변화 파악

2. 조사일시

- 2021. 5. 24 ~ 6. 4

3. 조사대상

- 전남지역 서비스분야 노동자 및 사용자 총 280명
- 전체(n=280명)노동자 n=226명, 사용자 n=54명

4. 조사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사업장 방문)설문조사 병행
- 오프라인으로 107명을 조사했고, 조사지역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장흥, 보성(5시, 2군)

5. 조사내용

- 2021년도 최저임금 준수 및 2022년도 희망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근무환경변화 등

6. 조사특성

- 이번 조사는 최저임금 취약계층인 서비스업 (편의점, 식음료판매 카페 등을 포함한 음식점, 아파트경비원과 미화원 직종)의 노동자와 사용자(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했음.
- 설문 문항은 구조화 된 설문으로 노동자용 14항, 사용자용 12항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했고, 2022년 희망최저임금 등의 노사 인식 비교를 위한 공통문항을 배치함

7. 조사결과(요약)

- 전남지역의 서비스업종 중 비율이 높은 음식업(요식업)군에서 노동자 16.4%(226명중 37명)가 조사에 참여하였고, 사용자(54명 중 12명), 기타가 노동자 71.6%, 사용자 59.2%로 나타남, 기타는 열거 직종에 들어있지 않은 택배, 택시운수노동자, 배달노동자 등이 포함됨.
- 사업규모는 10인 미만이 58.3%를 차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4.5%, 5인~9인 23,8%임. 노동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응답자의 87%임.

- 2021년 최저임금(8,720원) 준수 여부, 81.4% 최저임금을 받았고, 11.1%가 받지 못함(전 연령대, 업종에 분포됨).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미지급 이유로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일할 사람이 많다(41.18%)고 인식함. 사용자는 87%가 지급하고 있음.
-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인식, 노동자는 현행(8,720원) 수준에 대해서 약간낮음(46.4%), 적당(33.6%), 매우낮음(17.7%)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 비해 사용자는 매우높음(33.3%), 약간높음, 적당하다는 의견이 각각 31.4%로 노사 모두 적당하다가 30%대를 차지하고 있음(현행 수준이 작년대비 1.5%로 소폭 인상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임)
- 2022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노동자는 10,000원(40.2%), 9,500원(30.5%), 9,000원(24.3%), 사용자는 9000원(50%), 9,500원(9.2%), 기타(35%)로 각각 조사됨
- 최저임금 결정 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노사 모두 물가상승률(노 41.7%, 사 34%)을 1순위로 고려하고 있으며, 노동자는 생계비(34.3%), 사용자는 노동생산성(25.2%)과 생계비(21.8%)를 선택, 물가상승률과 생계비가 주요 고려 사항으로 나타남
- 노사의 최저임금에 관한 정부, 지자체에 바라는 사항으로 노동자는 위 최저임금 결정 시 우선 고려 사항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제도의 이원화(일본의 지역-광역단위 결정)지역, 업종차등 적용, 일자리유지 정책 등을 희망함

2

모니터링 결과

1. 노동자 최저임금 모니터링

- 응답자 226명(n=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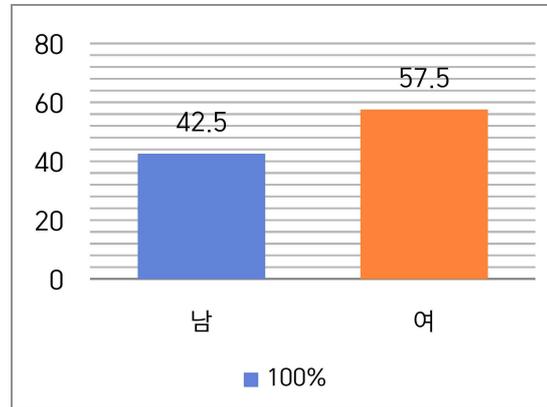
1) 일반사항

① 응답자의 성별 분류

응답자의 남녀비율은 여성 130명(57.5%), 남성 96명(42.5%)으로 여성비율이 과반을 넘었음.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남	96	42.5
여	130	57.5
계	22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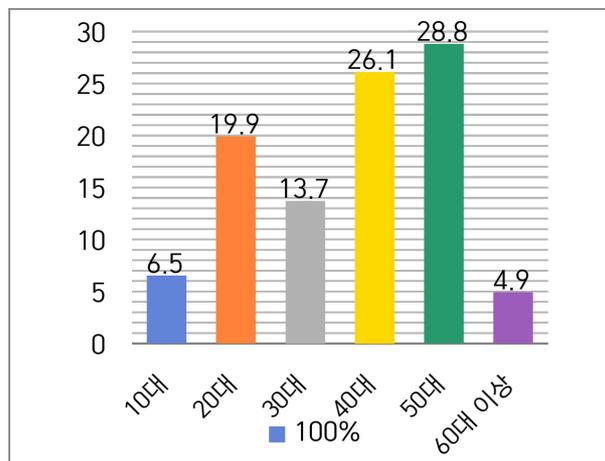
[도표1] 응답자성별

② 응답자 연령대 분류

연령대는 50대가 28.8%로 가장 높았고, 40대 26.1%, 20대 19.9%순임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10대	15	6.6
20대	45	19.9
30대	31	13.7
40대	59	26.1
50대	65	28.8
60대 이상	11	4.9
계	22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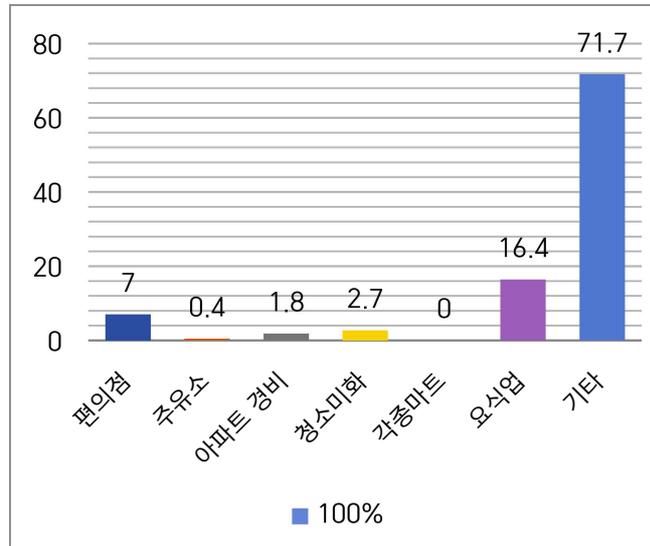
[도표2] 응답자연령별

③ 종사업종별 분류

- 응답자의 종사업종은 요식업(식음료/주로 카페 등 포함)16.4%, 청소미화 2.7%, 아파트경비 1.8%, 편의점 7.0%순으로 나타났고, 기타는 열거업종 외에 택배, 플랫폼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업종에 종사하는 연령대는 편의점, 카페 등은 20대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많았고, 음식점 등은 30~50대, 아파트 경비 등은 평균 연령대가 60대로 높았음.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편의점	16	7.0
주유소	1	0.4
아파트 경비	4	1.8
청소미화	6	2.7
각종마트	0	0
요식업	37	16.4
기타	162	71.7
계	22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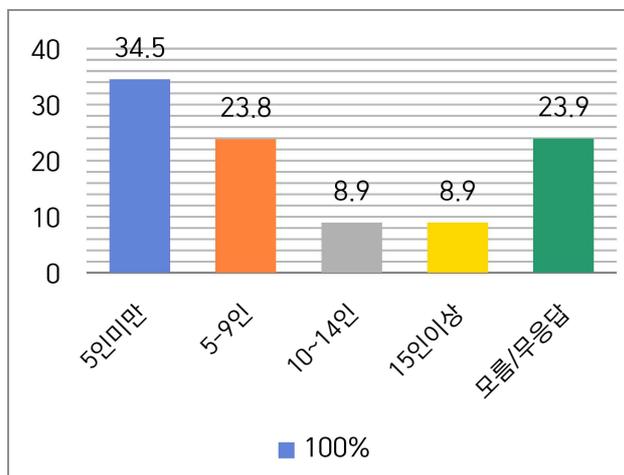
[도표3] 응답자업종별

2) 고용상태 및 감원

① 사업장 고용 규모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5인 미만	78	34.5
5~9인	54	23.8
10~14인	20	8.9
15인 이상	20	8.9
모름/무응답	54	23.9
계	22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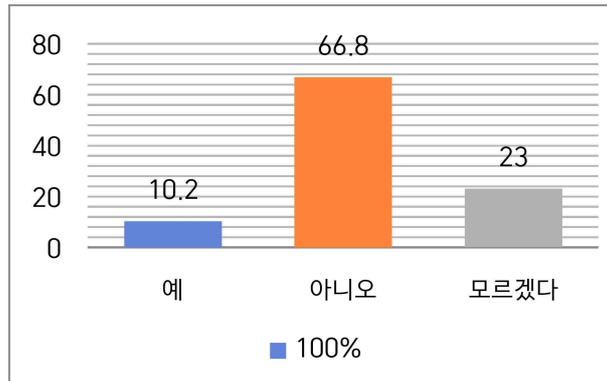
[도표4] 사업장고용규모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 3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5~9인' 23.9%로 나타나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58.4%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모름/무응답도 23.9%로 조사됨.

② 사업장 감원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예	23	10.2
아니오	151	66.8
모르겠다	52	23.0
계	22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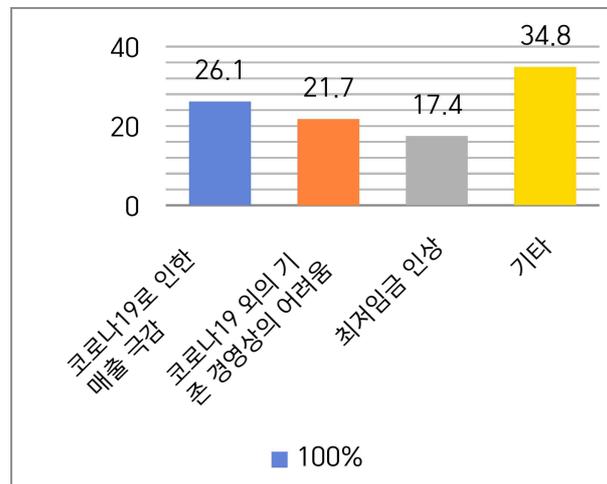


[도표5] 사업장 감원유무

- “2021년도 상반기에 감원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10.2%(23명)가 감원이 있었다고 답함. 실제로 코로나19의 장기화, 확산 여파로 2020년도 중에 감원 등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2021년 상반기에 감원의 규모는 크지 않음.
- 감원의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의 급격한 감소(26.1%), 코로나19 외의 기존 경영상의 어려움(21.7%),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17.4%) 그 밖의 이유(34.8%)로 나타남.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극감	6	26.1
코로나19 외의 기존 경영상의 어려움	5	21.7
최저임금 인상	4	17.4
기타	8	34.8
계	2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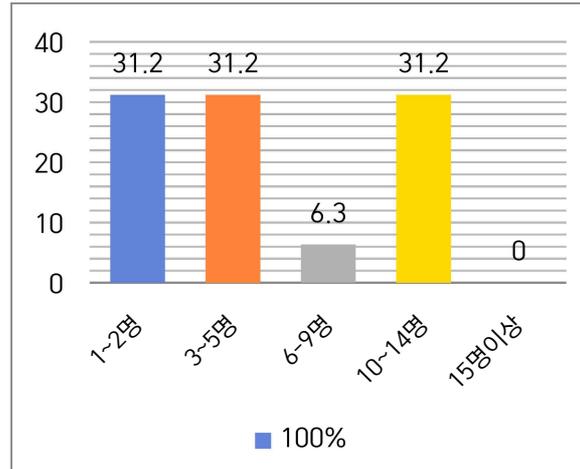


[도표6] 사업장 감원이유

- 감원의 규모는 15명 이상의 집단 해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10~14명(31.2%), 3~5명(31.2%), 1~2명 규모(31.2%)로 나타남. 5명 이하가 61.4%였음.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1~2명	5	31.2
3~5명	5	31.2
6~9명	1	6.3
10~14명	5	31.2
15명이상	0	0
계	1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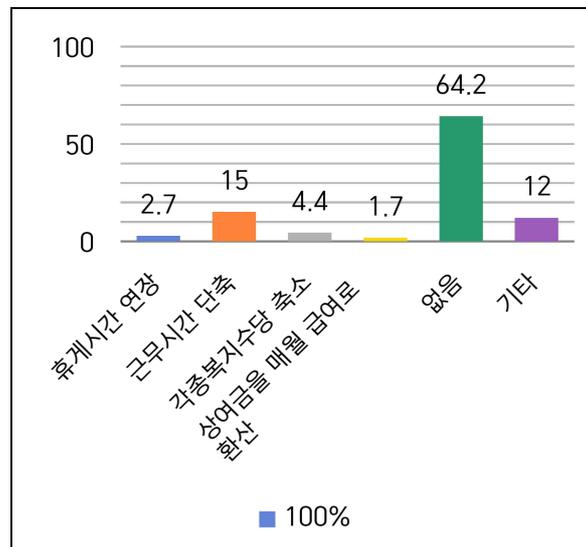
[도표7] 감원규모

3) 근무환경 변화의 여부

- ‘코로나19 이후, 사업장의 근무환경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15%(34명)가 근무시간 단축이 있었다고 답했고, 복지수당 축소 4%, 휴게시간 연장 2.7%로, 약 21%가 근무환경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없음 또한 64.16%(145명)로 나타남.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휴게시간 연장	6	2.7
근무시간 단축	34	15.0
각종복지수당 축소	10	4.4
상여금을 매월 급여로 환산	4	1.7
없음	145	64.2
기타	27	12.0
계	226	100



[도표8] 근무환경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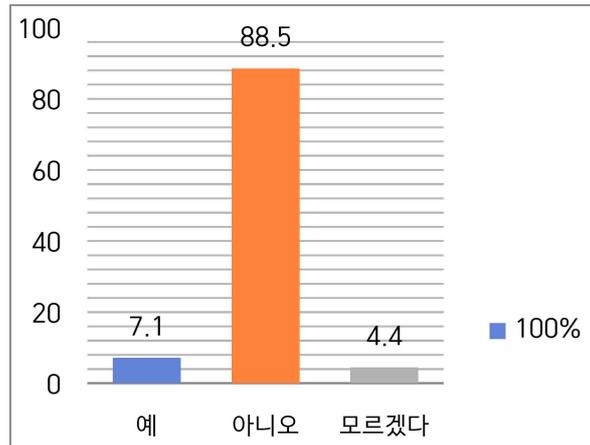
4) 코로나19 이후 고용과 가계 경제변화의 정도

①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실직경험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족 구성원 중에 실직한 사람이 있는지의 경험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1%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예	16	7.1
아니오	200	88.5
모르겠다	10	4.4
계	22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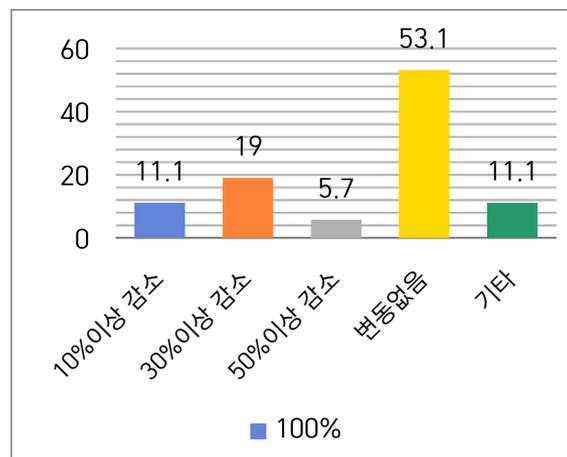
[도표9] 가구구성원의 실직경험

② 코로나19 이후 가계 소득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의 가계 소득 변화가 어떻게 됐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36%가 총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함. 이중 30% 이상 감소가 19.0%로 나타났고, 10% 감소 11.1%, 50% 이상 감소도 5.57%로 조사됨. 앞의 근무시간 단축과 휴게시간 연장 등 근무환경 변화가 실제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10%이상 감소	25	11.1
30%이상 감소	43	19.0
50%이상 감소	13	5.7
변동없음	120	53.1
기타	25	11.1
계	226	100



[도표10] 코로나19이후 소득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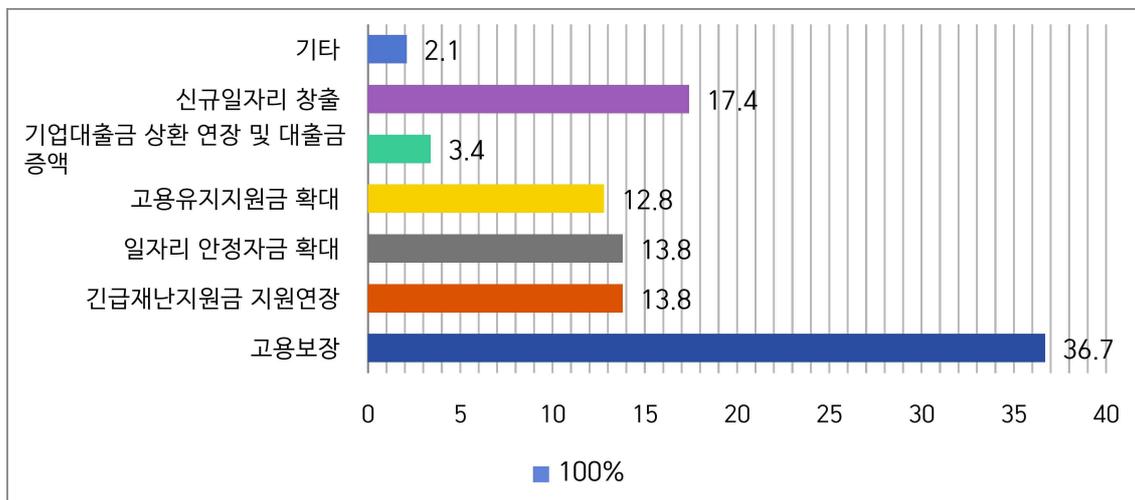
- 2020.6 조사발표한 『코로나19, 전남노동실태조사』에서는 변화 없음이 49% 이번 조사에서는 53.1%로 4%p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소득이 50%이상 감소한 업종은 기타이며, 연령대는 50대가 38.4%(5명)으로 가장 높고, 40대 30.7%로 40~50대가 69.1%로 조사됨.

5)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방안

-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는 해고 중단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경영계는 고통분담을 통한 기업살리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나 기업 우선해야 일이 무엇이냐 생각하는가(복수응답)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6.7%(141명)는 고용보장, 신규일자리 창출(17.4%),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연장과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가 각각 13.8%로 나타나, 해고 방지를 하거나 피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됨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고용보장	141	36.7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연장	53	13.8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53	13.8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49	12.8
기업대출금 상환 연장 및 대출금 증액	13	3.4
신규일자리 창출	67	17.4
기타	8	2.1
계	384	100



[도표1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우선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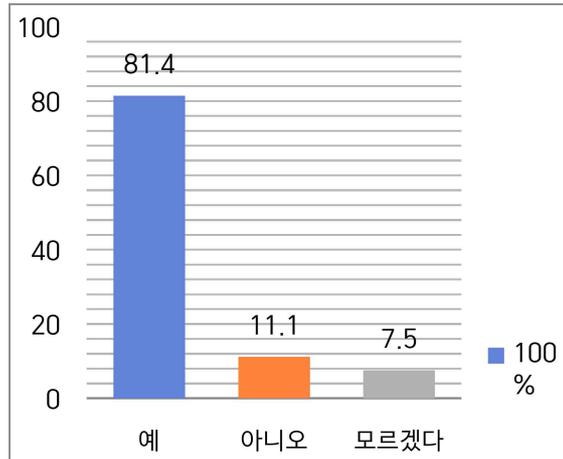
6) 2021년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 준수율

- "2021년 최저임금(시급 8,720원)을 받는가? 에 대한 질문에 노동자의 81.4%(184명)가 받고 있고, 11.1%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르겠다 7.52%, 최저임금준수율은 81.4%로 조사됨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예	184	81.4
아니오	25	11.1
모르겠다	17	7.5
계	226	100



[도표12] 최저임금 준수율

- 성별로는 여성 60.9%(112명), 남성(39.1%)이며 연령대별로는 **10대 11명(6%)**(여성 6명/편의점 1, 요식업 5, 남성 5명/ 편의점1, 기타4), **20대 39명(21%)**(여성 29명/편의점 2, 기타7, 요식업20, 남성10명/ 요식업6, 편의점1, 청소미화1, 기타1), **30대 26명(14.1%)**(여성11명 업종 편의점1, 기타10, 남성 15명/요식업3, 기타12), **40대 50명(27.1%)**(여성32명/ 요식업 1, 기타31, 남성18명/기타18) **50대 50명(27.1%)**(여성 32명/청소미화3, 기타29, 남성18명/기타18), **60대 이상 8명(4.3%)**(여성 2명/청소미화, 남성 6명/아파트경비4, 기타2),

-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11.1%는 1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각 연령대에 2~3명씩 고루 분포하며, 업종은 편의점 및 기타, 남녀비율은 1:2임. 40대에서 5명임.

② 최저임금 미지급 사유에 대한 노동자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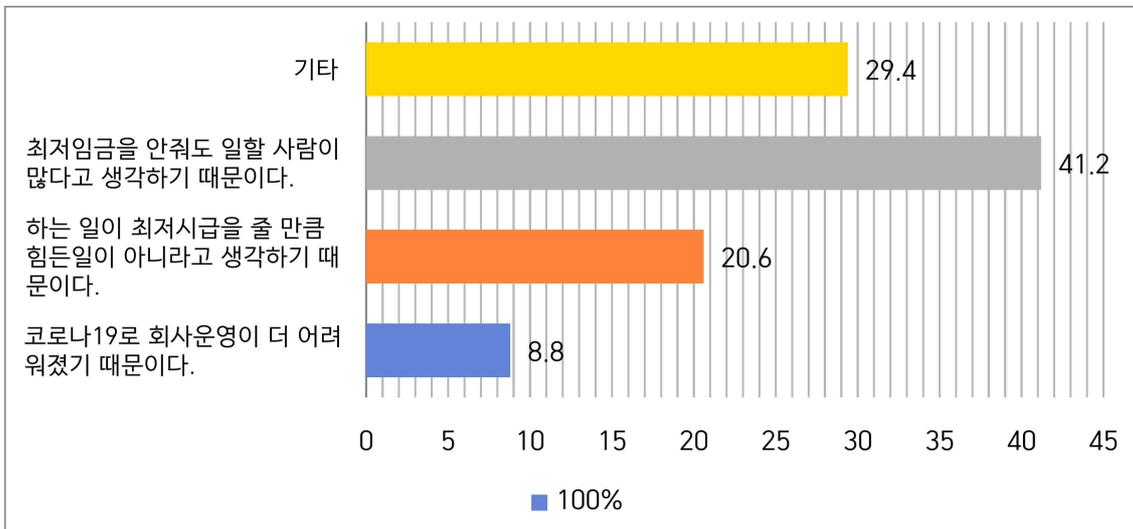
- 최저임금을 못 받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미지급 이유"에 대한 질문에 최저임금을 안 줘도 일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41.2%(14명)로 가장 높았고, 하는 일이 최저시급을 줄 만큼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20.6%(7명)로 나타남

2021 최저임금 모니터링 결과 보고

- 코로나19로 회사 운영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8.8%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상당 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코로나19로 회사 운영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3	8.8
하는 일이 최저시급을 줄 만큼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7	20.6
최저임금을 안 줘도 일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4	41.2
기타	10	29.4
계	34	100



[도표13]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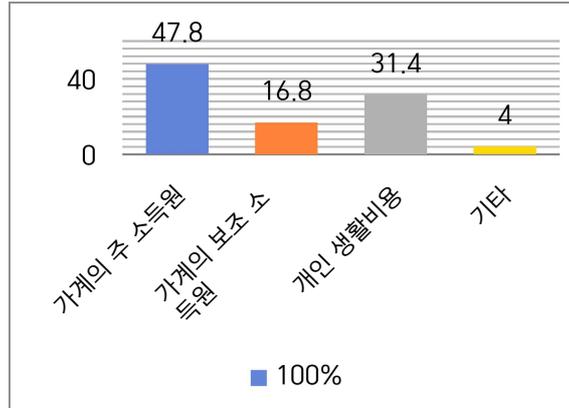
③ 가계 소득 중 본인 임금의 역할

- "본인의 근로소득(임금)이 가계 소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 47.8%(108명)가 가계의 주 소득원이라고 답하였고, 다음으로 31.4%가 개인 생활 비용에 충당하는 것으로 조사됨.
- 개인 생활 비용에 충당한다고 답을 한 응답자의 연령층을 보면 10대(15.5%), 20대(69.0%)층의 남녀가 비슷한 비율로 편의점, 요식(식당, 카페 등), 주유소 등지에서 일하고 얻은 수입으로 자신의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1 최저임금 모니터링 결과 보고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가계의 주 소득원	108	47.8
가계의 보조 소득원	38	16.8
개인 생활비용	71	31.4
기타	9	4.0
계	22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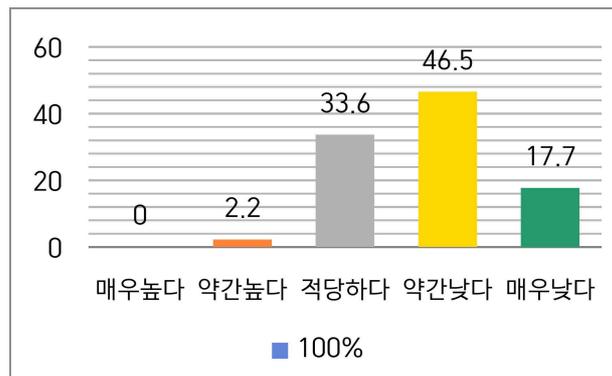
[도표14] 가계 소득 중 본인의 임금역할

④ 2021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

-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46.5%가 약간 낮다고 답했고, 적당하다 33.6%, 매우 낮다 17.7% 순으로 나타나, 64.2%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적당하다는 응답은 20대에서 40%로 가장 높았고, 업종별로는 요식업* (식당, 카페 등)비중이 높았으며, 약간 낮다는 응답은 40(36.2%)~50대(30.5%)에서 높았음.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매우높다	0	0
약간높다	5	2.2
적당하다	76	33.6
약간낮다	105	46.5
매우낮다	40	17.7
계	226	100



[도표15] 최저임금수준에 대한 인식

7) 향후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복수선택)"에 대한 질문에 물가상승률이라고 41.5%(158명)가 답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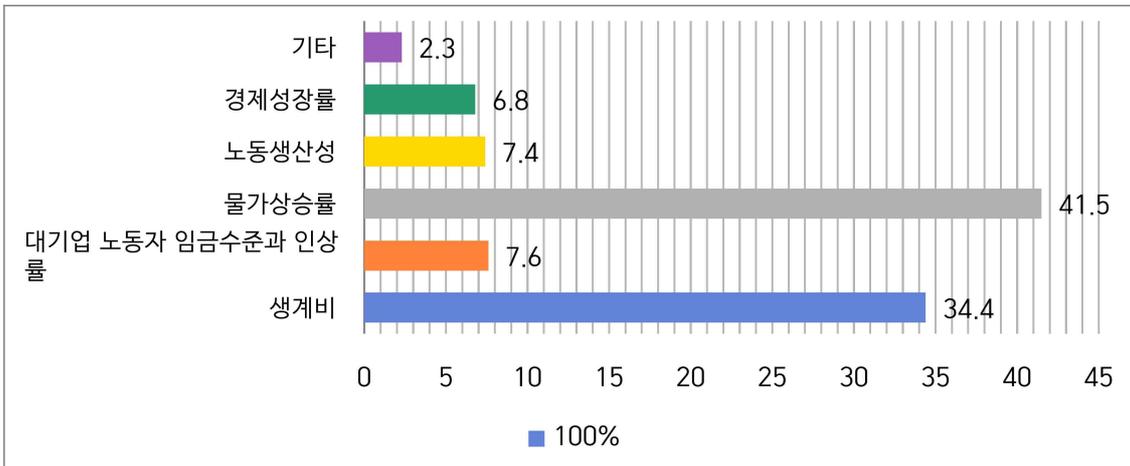
2021 최저임금 모니터링 결과 보고

생계비 34.4% 순으로 나타나, 물가상승률과 생계비를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내지 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물가상승률과 생계비를 선택한 연령층은 40대와 50대가 각각 1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생계비	131	34.4
대기업 노동자 임금수준과 인상률	29	7.6
물가상승률	158	41.5
노동생산성	28	7.4
경제성장률	26	6.8
기타	9	2.3
계	381	100



[도표16] 최저임금결정 시 우선 고려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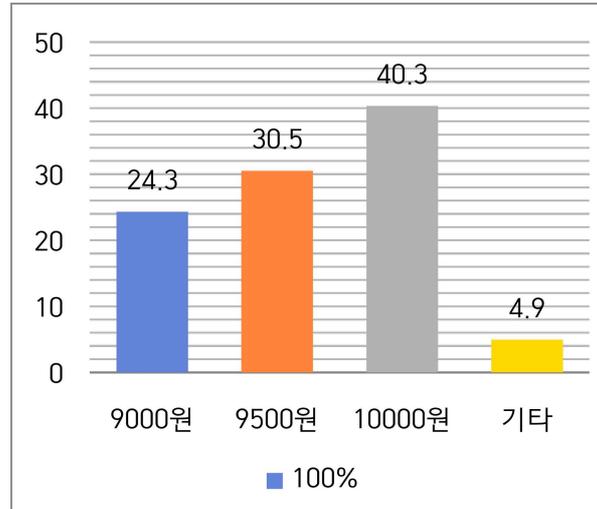
② 2022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

- "2022 최저임금(최저시급)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0.3%가 희망최저시급 10,000원을 선택했고, 다음으로 9,500원(30.5%), 9,000원(24.3%)순으로 조사됨
- 적정 최저 임금으로 10,000원을 선택한 응답자의 연령층은 50대(45.1%)가 가장 높았고, 40대(33.0%)순으로 나타남
- 적정 최저임금으로 9,500원을 선택한 응답자의 연령층은 40대(23.2%)가 가장 높았고, 20대와 50대가 각각 20.3%, 30대가 18.8%순으로 조사됨.

2021 최저임금 모니터링 결과 보고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9,000원	55	24.3
9,500원	69	30.5
10,000원	91	40.3
기타	11	4.9
계	226	100



[도표17] 2022년 최저임금 적정수준

8) 최저임금에 관한 노동자의견

(자기 기술)

- 기업위주의 정책보다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 생산을 하길 바랍니다
- 가장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서로 간의 격차를 줄이고 최소한의 삶의 비용이니 잘 고려해주세요.
- 최저임금을 올리던 올리지 않건, 우선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곳을 단속하고 관련 법을 강화**해주세요
- 지자체 단속강화, **정부 단속 여부 확인**
-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은 올라야 하고 경영주도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부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합니다
- **물가인상에 따른 생계비 보장**하라. 지금 최저임금으로는 5인 가족 생계비로는 턱도없다.
-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편의점은 계약서도 안 쓰고 최저시급보다 훨씬 적게 주고 말이 됩니까
- 최저임금보다 **총소득분위를 올려주세요**
- 최저 임금으로 생계와 최저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권리를 국가는 지켜줘야하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 대기업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을 가급적 동결하고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가급적 임금 인상율을 정부가 직접 주도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서민들이 살수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공기업에서 근무하는데 무기계약으로 약간의 고용안정(?)은 되었지만 10년이 되어도 경력인정 하나 없이 최저시급만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고 인원이 감축되면 그 결원된 인건비에서 월급을 조금 더 줄 뿐입니다.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으면 합니다.
-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급여 만이 최소한이다
- 근로시간 및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독관청은 최저임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을 무경력 무자격 사회생활 최초 입직자 기준으로 명시해주세요
- 최저임금이 최고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 물가상승율에 비해 임금은 현저히 낮다
- 꾸준한 일자리 창출
- 1만 원으로 맞춰줬으면 한다.
- 노동자의 임금이 고루 분배되어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모든 가게들이 최저임금 이라도 주면 좋겠어요.
- 업종별 차등적용
- **물가상승률과 비례해서 인상 금액조정**
- 최저생계비는 쥐야 먹고살죠, 현실적인 최저임금 적용해주세요.
-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 소상공인과 고용유지에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방안 제시,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 관심 등 전반적 노동환경을 고려해주시길.
- 물가상승에 맞는 임금책정
- 최저생계보장이 인간다운 삶 존엄 기준은 아님. 최저임금 기준은 존엄이 기준이 되어야 함
- 노동자와 고용주 간에 적절선을 찾아주세요

2. 사용자 최저임금 모니터링

1) 조사대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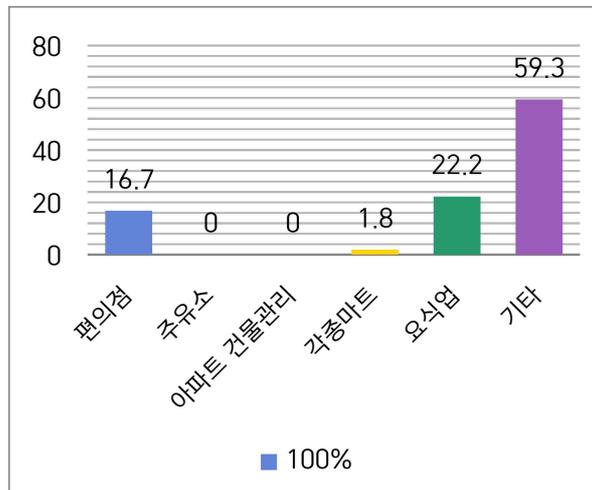
- 응답자 54명 (n=54)

① 업종분류

- 응답자의 22.2%(12명)가 요식업(음식점, 카페 등), 편의점 16.7%(9명)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가 59.26%(32명)로 조사됨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편의점	9	16.7
주유소	0	0
아파트 건물관리	0	0
각종마트	1	1.8
요식업	12	22.2
기타	32	59.3
계	5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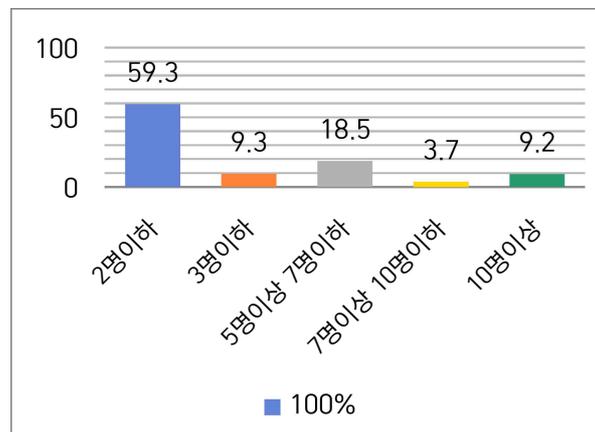
[도표18] 사업장의 업종

② 고용규모

- 고용규모는 2인 이하 고용사업장이 59.3%(32명)로 가장 높고, 5명 이상 7명 이하 18.5%(10명), 3명 이하 9.3% (5명) 순으로 나타나, 5인 미만의 규모 68.6%로 조사됨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2명이하	32	59.3
3명이하	5	9.3
5명이상 7명이하	10	18.5
7명이상 10명이하	2	3.7
10명이상	5	9.2
계	54	100



[도표19] 고용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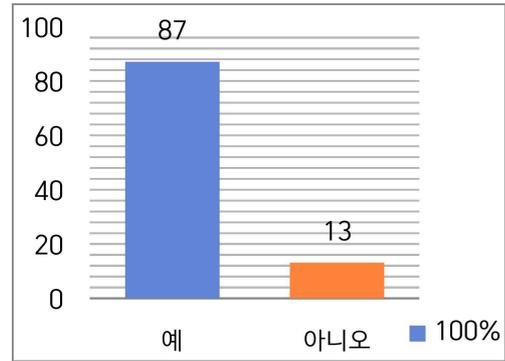
2) 최저임금과 지급 등

① 최저임금 준수율

-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중 최저임금(8,720원)을 지급하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7.0%(47명)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예	47	87.0
아니오	7	13.0
계	5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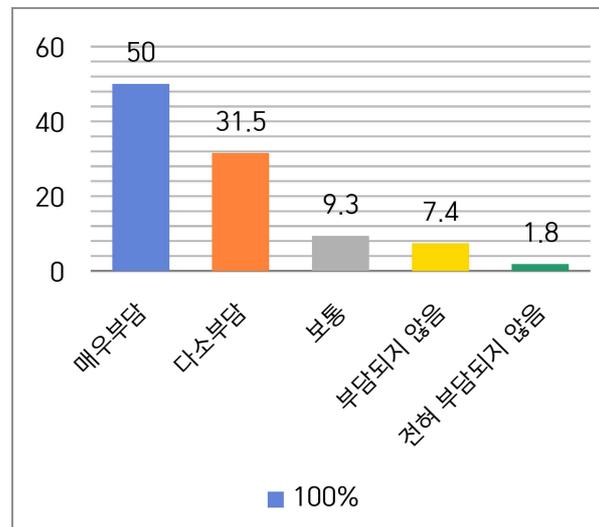
[도표20] 최저임금준수율

② 최저임금의 인상이 사업장 운영에 주는 부담

-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장 운영에 어느 정도 부담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50%가 매우 부담된다고 답하였고, 다소 부담 31.5%, 보통 9.3% 순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81.4%가 부담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매우부담	27	50.0
다소부담	17	31.5
보통	5	9.3
부담되지 않음	4	7.4
전혀 부담되지 않음	1	1.8
계	5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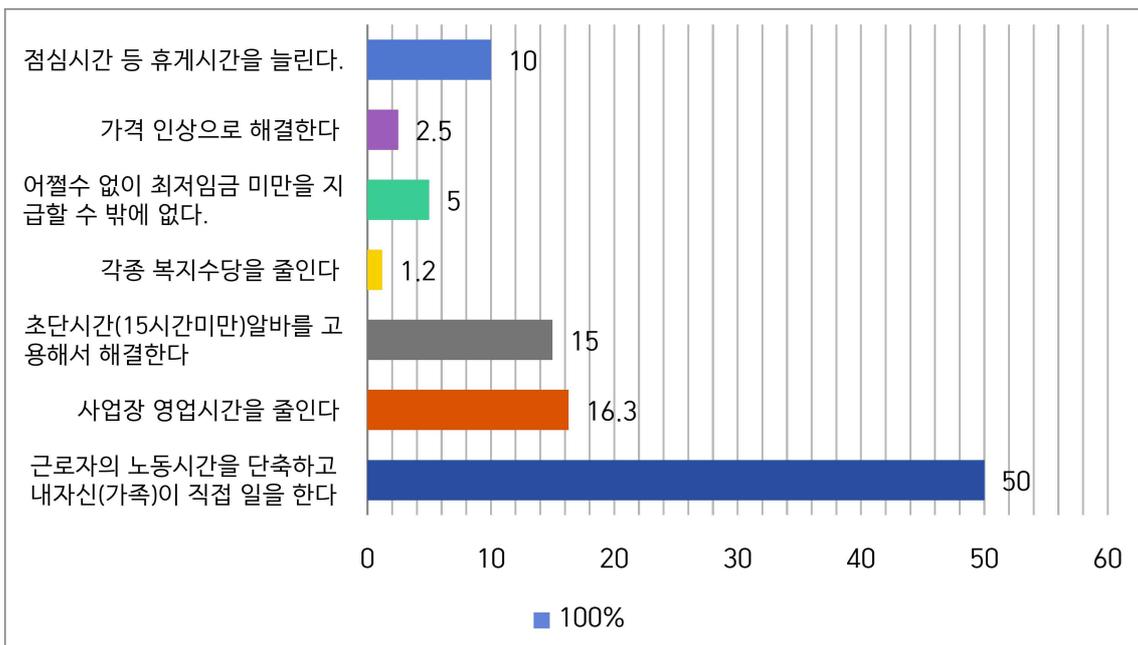


[도표21] 최저임금인상이 사업장 운영에 주는 부담

- ③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서 하는 노력, 방법
-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는 노력이나 방법(복수선택)"으로 응답자의 50.0%가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자신이나 가족이 직접 일을 한다, 또, 사업장의 영업시간 단축(16.3%) 하거나,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해결(15.0%)하는 방법을 선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내 자신(가족)이 직접 일을 한다	40	50.0
사업장 영업시간을 줄인다	13	16.3
초단시간(15시간미만)알바를 고용해서 해결한다	12	15.0
각종 복지수당을 줄인다	1	1.2
어쩔수 없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	4	5.0
가격 인상으로 해결한다	2	2.5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을 늘린다.	8	10.0
계	80	100



[도표22]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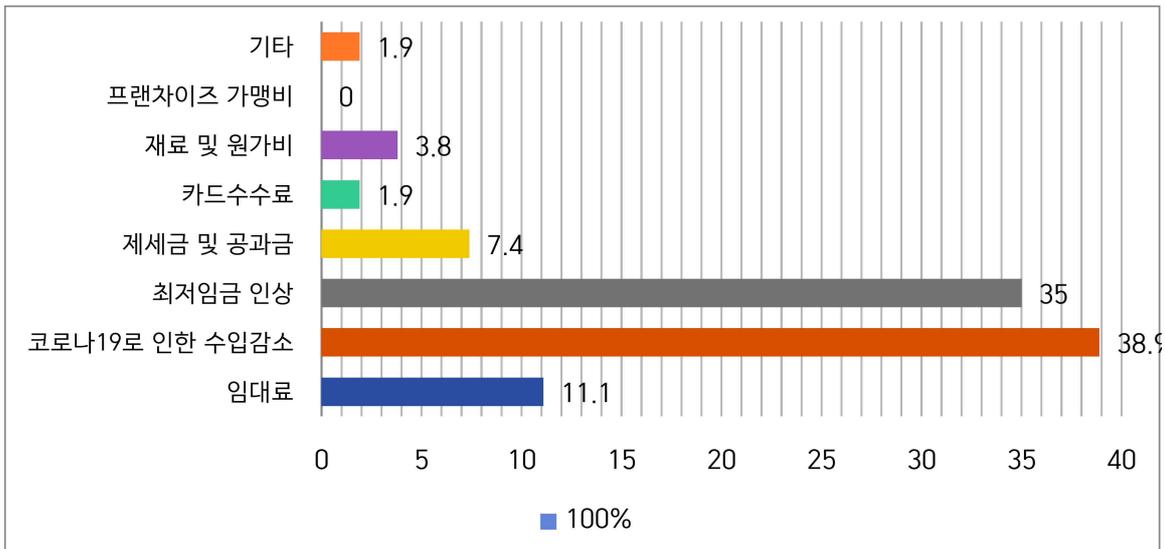
3) 사업장 운영

① 사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사항 1순위

-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담되는 사항 1순위는 응답자의 38.9%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라고 답하였고, 다음으로 35.0%가 최저 임금 인상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임대료	6	11.1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21	38.9
최저임금 인상	19	35.0
제세금 및 공과금	4	7.4
카드수수료	1	1.9
재료 및 원가비	2	3.8
프랜차이즈 가맹비	0	0
기타	1	1.9
계	54	100



[도표23] 사업운영에 부담되는 사항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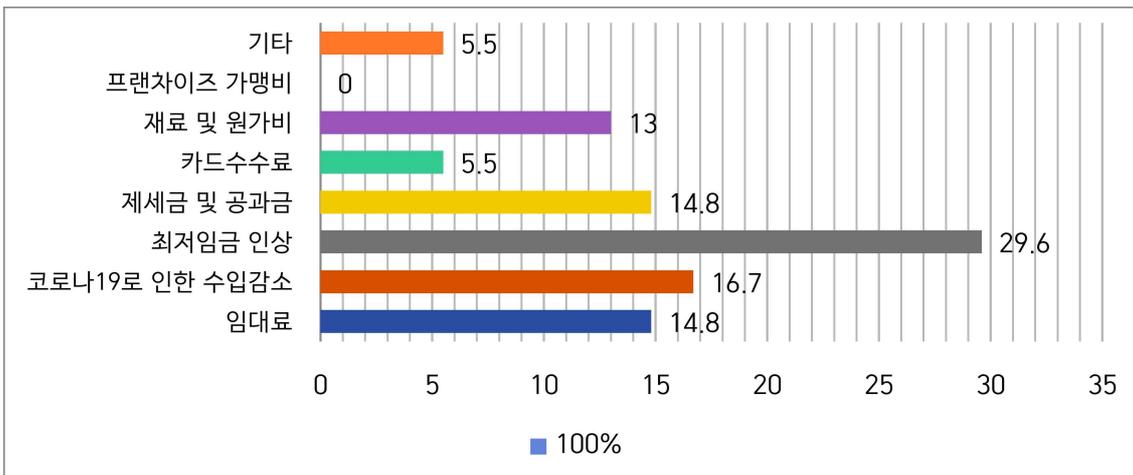
② 사업장 운영에 부담되는 사항 2순위

- 응답자의 29.6%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답하였고,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16.4%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로 조사됨.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임대료	8	14.8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	9	16.7
최저임금 인상	16	29.6
제세금 및 공과금	8	14.8
카드수수료	3	5.5
재료 및 원가비	7	13.0
프랜차이즈 가맹비	0	0
기타	3	5.5
계	54	100



[도표24] 사업운영에 부담되는 사항 2순위

4) 사업장 고용 및 근무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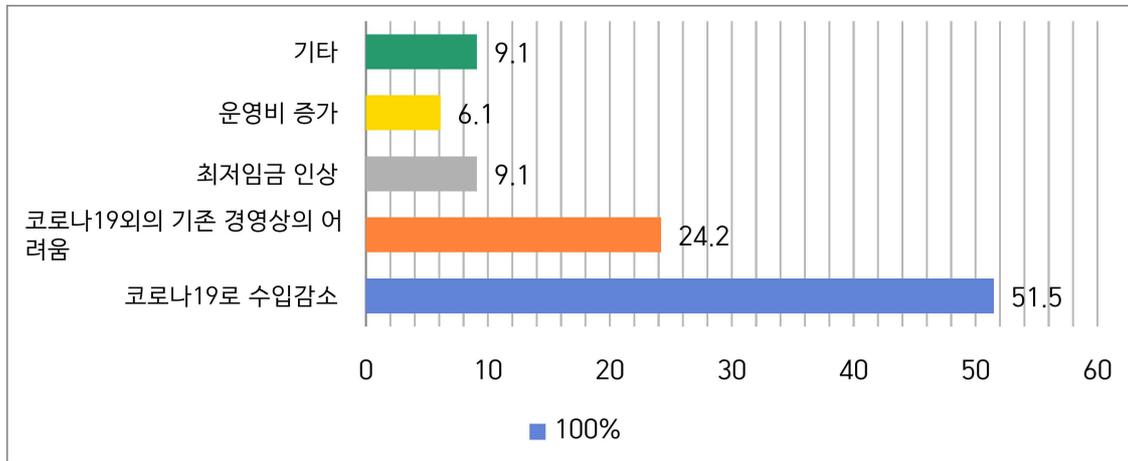
① 감원 여부와 이유

- "2021년 상반기 감원(해고)을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54명의 응답자 중 33명(61%)이 감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가 51.5%(17명), 다음으로 코로나 19위의 기존 경영상의 어려움이 24.2%(8명)로 조사됨

2021 최저임금 모니터링 결과 보고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코로나19로 수입감소	17	51.5
코로나19외의 기존 경영상의 어려움	8	24.2
최저임금 인상	3	9.1
운영비 증가	2	6.1
기타	3	9.1
계	3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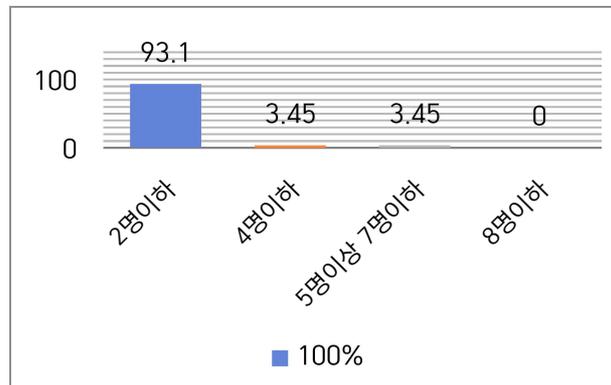
[도표25] 감원사유

② 감원 규모

- "감원 인원은 몇 명인가?"라는 질문에 2명 이하라고 답한 응답자가 93.1%(27명)였고, 3명 이하, 4명 이상 7명 이하가 각각 3.45%(1명)으로 조사됨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2명이하	27	93.1
3명이하	1	3.45
4명이상 7명이하	1	3.45
8명이하	0	0
계	29	100



[도표26] 감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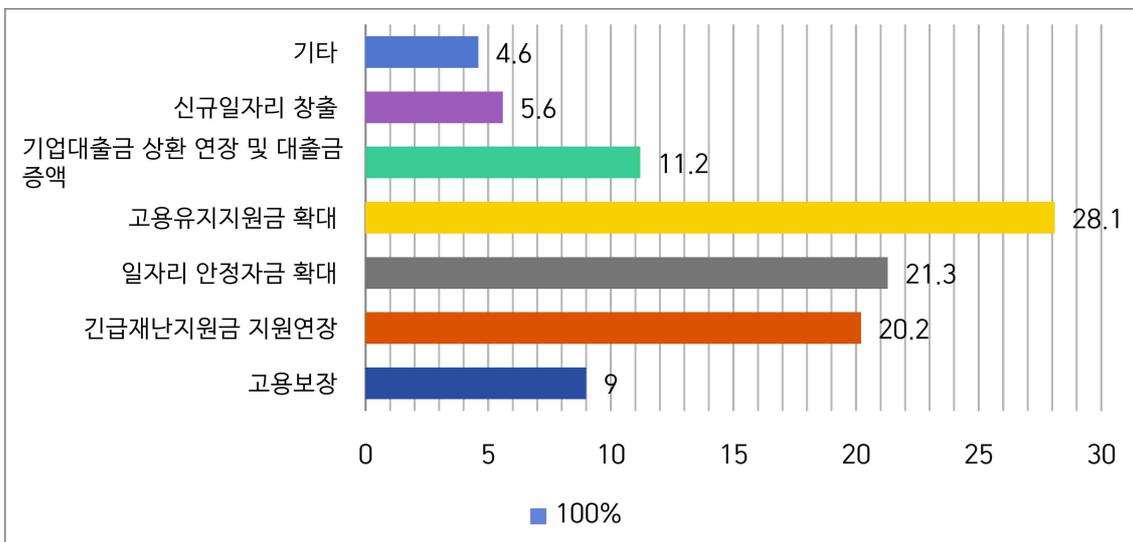
5)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방안

① 고용위기 극복 방안 우선 사항

-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는 해고 중단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경영계는 고통분담을 통한 기업살리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나 기업 우선해야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복수응답)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8.1%(25명)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를 선택했고, 다음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21.3%),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연장(20.2%), 기업대출금 상환 연장 및 대출금 증액(11.2%)순으로 나타나, 해고회피 수단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대책을 정책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됨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고용보장	8	9.0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연장	18	20.2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19	21.3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25	28.1
기업대출금 상환 연장 및 대출금 증액	10	11.2
신규일자리 창출	5	5.6
기타	4	4.6
계	89	100



[도표27] 고용위기극복 방안 우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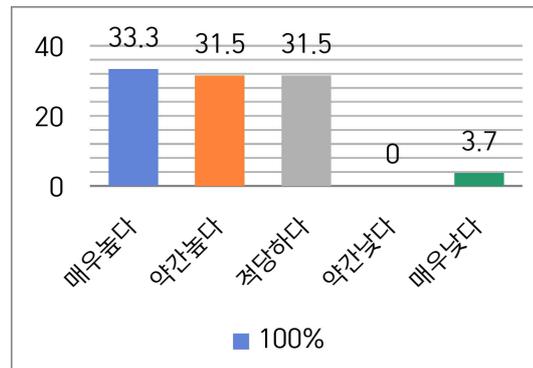
6) 향후 최저임금

① 2021년에 적용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인식

- "현재(2021년) 적용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높다가 33.3%로 가장 높았고, 약간높다, 적당하다가 각각 31.5%로 나타나, 응답자의 63%가 약간 높거나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매우높다	18	33.3
약간높다	17	31.5
적당하다	17	31.5
약간낮다	0	0
매우낮다	2	3.7
계	5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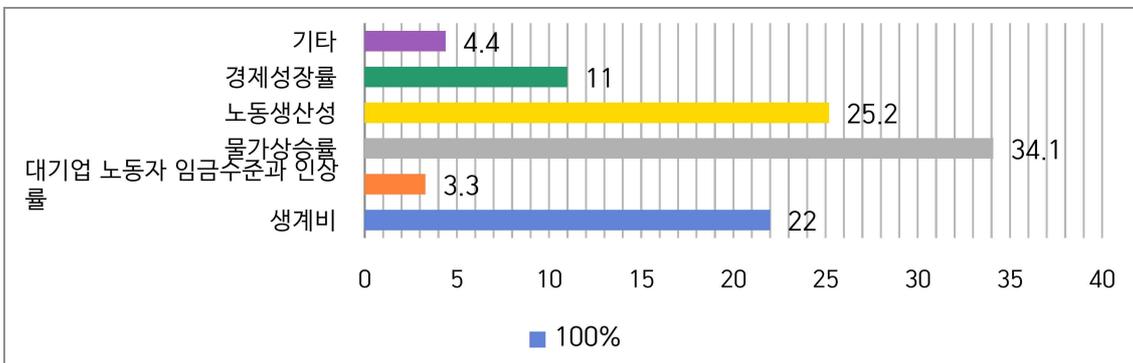
[도표28] 2021최저임금수준에 대한 인식

②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복수선택)"으로 물가상승률이 3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동생산성 25.2%, 생계비 22.0%순으로 나타남.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생계비	20	22.0
대기업 노동자 임금수준과 인상률	3	3.3
물가상승률	31	34.1
노동생산성	23	25.2
경제성장률	10	11.0
기타	4	4.4
계	91	100



[도표29] 최저임금 결정 시 우선 고려 사항(사용자)

③ 2022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

- "2022년도 적당한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에 9,000원이라는 답변이 50%로 나타났으며, 기타 35.2%, 9,500원 9.3%, 10,000원 5.5% 순으로 조사됨

- 적정 최저임금으로 10,000원 선택한 사용자는 3명으로 고용규모는 2명 이하이며,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노동시간 단축 등을 고려하고 있고, 적정임금 산정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생계비를 우선 고려하고 있고, 2021년도 최저임금(시급8,720원)에 대해서 매우낮다(2명)와 적정하다(1명)고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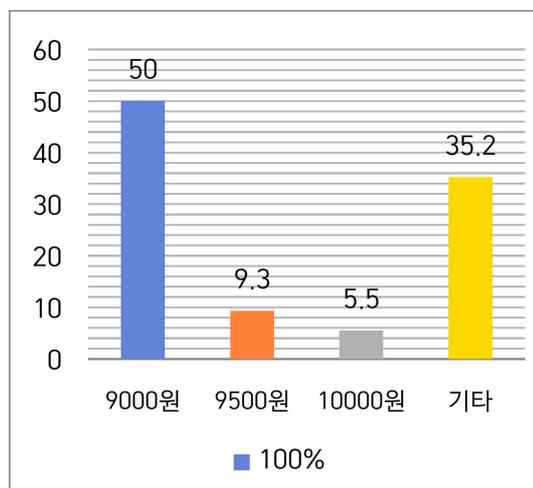
- 적정 최저임금으로 9,500원을 선택한 사용자는 5명, 고용규모는 2명 이하 2명, 5명이상 7명이하 1명, 무응답 2명이며, 최저 임금 인상 부담 대응방법으로 노동시간 및 영업시간 단축을 고려, 2021년도 최저임금은 4명이 적당, 1명이 약간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적정 최저임금으로 9,000원 선택한 사용자는 27명이며, 고용규모 2명 이하, 최저 임금인상 부담 대응 방법은 위의 사용자와 같고, 2021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은 적당하거나 약간높다가 약 반반이며, 매우 높다가나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됨

-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 19명은 2021년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높다고 인식하며, 2022년 적정 최저임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음.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9,000원	27	50.0
9,500원	5	9.3
10,000원	3	5.5
기타	19	35.2
계	54	100



[도표30] 2022년 최저임금적정수준

7) 최저임금에 관한 사용자의견

(자기 기술)

-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경영에 있어 성장시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직업이나 직종에 차별을 뒤야한다
- 직종과 사업장에 따라 최저임금 차별화가 필요하다
- 급격한 임금인상은 고용주의 부담입니다. 인상은 인정하나 고용주의 입장도 생각하셨으면,,
- 중소기업.소상공인을생각해야한다
- 초보신입사원과 최저임금의 괴리감에 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인상은 해야합니다. 하지만 저희 개인사업자들한테는 부담입니다
- 개인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바라는 건 많아지고 그에 대한 보상을 다해 줄 수 없고 너무 힘이 듭니다
- 고객들이 설치비 단가는 쥐꼬리만큼 올리고 그것마저도 다른 제품단가를 떨어뜨려 올리는 수준이네요. 근로자 최저임금을 맞춰주기가 힘듭니다.
- 양대 노총에 휘둘리지 말고 많은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 자영업자는 대출받아 운영하는데 노동자들은 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 정부 공약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이 아닌 현실,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너무 힘이 들면 결국은 작은 일자리들이 사라져 실업률이 늘어나 불만을 세력으로 표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 최저임금이 수입에 비해 너무 높다
- 기술직 등 최저임금 차등화
-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음
- 자영업자에게 지원 가능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 복지혜택 시간제 일자리창출
- 최저임금은 인간 자존의 최저수단.
- 사업주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3

결론 및 제언

1. 조사대상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분야[열거직종:편의점, 주유소, 아파트경비, 청소미화, 각종 마트, 요식업(음식업, 카페 등) 6종과 기타로 분류하여 노동자 226명과 사용자 54명 총 280명으로부터 설문회수 하였음.
- (노동자)설문응답자 중 여성비율은 57,5%, 연령대는 40~50대(54.9%)가 가장 많았고 20대, 30대, 1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34.5%, 5~9인 사업장 23.8%로 10인 이하의 사업장 58.3%에서 일하고 있음.
- (사용자) 고용규모 2인 이하 59.3%, 5~7명 18.5%로 7명 이하가 77.8%임

2. 최저임금준수율

-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81.4%, 받지 못한 노동자는 11.1%로 나타남
- 사용자의 최저임금준수율은 87%임
- 최저임금 미지급사유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은 최저임금을 안 줘도 일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41.2%), 하는 일이 최저시급을 줄 만큼 힘든 일이 아니다(20.6%)라는 인식을 보임.

3. 최저임금 수준과 사용자의 부담에 관한 인식 등

- (노동자) 2021년도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낮다(약간 46.7%, 매우 17.7) 64.2%, 적정하다(33.6%)고 인식하고 있음
- (사용자) 최저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 약간 높거나 적당하다

고 인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장 운영에 81.5%(매우 50%, 다소 31.5%)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자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자신이나 가족이 직접 일을 하며(50%), 영업시간단축(16.3%),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를 고용(15%)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현재 사업장 운영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38.9%), 최저 임금인상(35.0%)을 들고 있음

4. 사업장 고용 및 근무환경 변화

- (사용자)응답자 중 61%가 사업장노동자 감원을 했고, 그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51.5%), 코로나19 이외 기존 경영상의 어려움(24.2%)이었으며, 감원 규모는 2명 이하가 93.1%로 가장 높고, 3명 이하, 5명 이상 각 3.45%수준임
- 노동자의 근무환경변화는 없음(64.2%), 근무시간단축(15.0%), 각종 복지수당축소(4.4%)등으로 조사됐는데, 2020년 코로나발생 후 1년이 지나면서, 요식업(음식업, 카페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시행으로 영업시간 단축 등 변화에 대응, 필요최소한으로 노동자를 고용(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는 한편, 사용자 자신 또는 가족이 직접 일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5. 장기화 된 코로나19의 영향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노동자의 가계 소득변화 크게 나타났으며, 36%가 총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020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여전히 소득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음
- 코로나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노사의 인식을 보면, 우선순위로 노동자는 고용보장(36.7%), 사용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28.1%)을 선택해 노사 모두 해고 회피, 고용유지 관련 지원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6. 2022년 최저임금수준

- (노동자) 10,000원(40.3%), 9,500원(30.5%), 9,000원(24.3%) (사용자) 9,000(50.0%), 9,500원(9.3%), 10,000(5.5%)
- 노사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차이는 존재하나,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과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이 인식하고 있음. (노동자) 물가상승률(41.5%), 생계비(34.4%)순이고, (사용자)물가상승률(34.1%), 노동생산성(25.2%), 생계비(22.0%)순으로 나타남.

7. 결론 및 제언

- 최저임금의 준수율은 80%대(노동자 81.4%, 사용자 87.0%)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이 조사에서 나타난 비준수의 직종, 사업장, 노동자의 연령대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세중소사업장(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최저임금, 노동인권교육을 해나갈 필요가 있음.
-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재난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장 운영에 부담되는 사향으로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를 1순위로 꼽고있고, 노동자들 또한 코로나로 인해 2020년부터 여전히 소득감소 상태에 놓여있어, 지속적인 재난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분야의 5인 미만(이번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의 34.5%, 사용자의 68.6%)의 영세규모사업장은 코로나재난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을 직간접으로 크게 받고 있음. 사업장의 매출감소는 노동자의 각종 처우, 노동조건의 후퇴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에 영세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 및 생존대책 마련이 필요
-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선 고려사항은 노사 모두 “물가상승” “생계비”를 들고 있어, 현실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적극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임